‘디지털·생태·연구’ 혁신… ‘아시아 예술정원’ 착공

광주시립미술관 사업계획 발표
백남준 특별전 등 20개 전시 진행
아시아 디지털가든 콘텐츠 개발 사업
미술관 연구소 설치 운영 연구 역량 강화
내년 개최 블록버스터 명화전 준비도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관과 중외공원 일대를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꾸미는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을 이달말 착공, 생태미술관으로의 첫발을 내딛는다. 또 올해는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 특별전’을 비롯해 모두 20여개의 전시를 선보이며 내년에 열릴 세계적인 명화 블록버스터 전시를 준비하는 작업도 시작한다.

김준기 광주시립미술관 신임 관장은 7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생태·연구 혁신을 3대 과제로 내세운 미술관 운영 방향과 올 사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올해 미술관은 본관, 하정웅미술관, 사진전시관, 미디어아트플랫폼 등에서 모두 20여개의 전시를 선보인다.

먼저 본관에서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네덜란드 파빌리온 ‘세대간 기후범죄 재판소(CICC):멸종 전쟁)전(4월5일~7월30일)을 개최한다.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를 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이는 기획이다.

광주정신과 제주 4.3정신의 전국적 확산과 연대를 도모하는 두 개의 굵직한 전시도 열린다. 강요배 작가와 함께 제주 4.3미술을 이끌어온 ‘박경훈 작가의 4.3 기억·투쟁, 새김과 그림전’과 중진작가 초대전 ‘김호석:검은 먹 한 점’이다. 김호석 작가는 1999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00년 광주비엔날레 미술기자상을 수상한 한국 수묵화의 대표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작과 더불어 5·18을 주제로 한 신작을 만난다.

‘백남준 특별전’은 겨울방학 시즌에 맞춰 전시를 꾸릴 예정이다.

하정웅미술관은 유지원·안준영·강원제·김덕희 등 4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제23회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2023 위상의 변주’, ‘하정웅컬렉션 특별전-김영숙 전’, 청년작가 초대전을 개최한다.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은 광주전남 출신 작가 신도원과 정정주를 초대하며 문준용 작가의 ‘Augmented Shadow:별을 쫓는 그림자들’전도 개최한다. 또 광주비엔날레 전시기간 중에는 이스라엘 파빌리온과 ‘국제미디어 파사드 프로젝트-디지털 별자리’가 펼쳐지며 특히 8월부터 세 달간 ‘광주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미디어아트 기획전’을 개최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시관에서는 ‘이주한-남도풍경’전이 펼쳐지며 어린이미술관에서는 현대미술의 거장 이건용 작가가 참여한 ‘이건용-다섯 걸음’전이 열린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강좌는 미술사학자 이태호교수(명지대 석좌교수)가 들려주는 우리 그림 이야기 ‘K-콘텐츠:전통과 현대를 아울러’가 30일 첫 강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모두 8차례 열린다.

또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직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3미술관포럼이 매달 한 차례(첫번째 월요일 오후 4시) 열리며 하정웅미술관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해설이 있는 예술영화 상영회’를 진행한다.

김호석 작 ‘광주민주화운동사’

광주시립미술관은 올해 백남준 특별전 등 20여개 전시를 선보인다.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도 3월 착공과 함께 본격 궤도에 들어간다. 190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아시아의 경관을 담은 문화정원, 어린이들을 위한 아시아생태예술놀이 정원, 문화예술회관과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인 347m하늘다리 조성 등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중외공원에 ‘아시아 디지털가든 콘텐츠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도 진행중이다

세계적인 명화를 만나는 블록버스터 전시는 내년 여름 시즌을 목표로 진행한다. 오는 6월까지 자료 조사 등을 마친 후 행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

미술관은 또 학예연구 역량 강화와 함께 소장품 수집과 연구 등을 진행할 미술관 연구소를 설치 운영하며 연구사업 체계화, 작품 추천단 제도 도입 등으로 소장 작품 수집 절차를 개선한다.

또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후원회를 재조직하고 관람객 편의를 위해 도슨트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증축공사 계획으로 휴업중인 카페레스토랑은 1층 공간 확장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비엔날레 기간에는 1층 로비에 임시 시민 휴게 공간 마련한다.

미술인과 시민이 공동참여하는 (가칭)광주미술문화민관협치테이블을 구성하고 아트페어 구입 작품을 기관과 민간에 대여· 활용하기 위한 미술은행제도, 빈집을 연계한 작은 미술관 설립도 추진한다.

그밖에 민주인권의 광주정신을 생명평화로 승화하는 컬렉션을 상설전시하는 (가칭)아시아평화미술관 건립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Heart party Ⅱ’

양정원 개인전 ‘자정의 시간’

29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한국화가 양정원 작가 개인전이 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가 진행한 청년작가 전시 공모에 선정돼 마련됐다.

‘자정(自淨)의 시간- 두 번째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양 작가는 인간과 자연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과 그 안의 따뜻한 희망과 치유를 탐구하는 작품을 선보인다.

양 작가는 현대인의 삶을 천진난만한 동물의 모습으로 유쾌하게 재구성해 표현했다. 작품은 동물이 모티브로, 작가가 생각하는 인간에 의해 가장 피해 받는 생명체인 동물이 주로 등장한다. 작업 소재는 사랑스럽지만 작업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한번 더 인식하게 해준다.

작가는 현대사회의 자연파괴, 기후위기, 생명약탈 등 자본주의 사회 속 경쟁과 탐욕이 팽배하는 인간의 잔혹한 모습을 귀여운 동물의 형상으로 표현한다. 작품에 느껴지는 밝은 분위기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이다.

전남대학교 미술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한 양 작가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양 작가는 “나의 작품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함께 공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우리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상상의 공간을 그려낸다. 작업은 동물들의 순수함을 담은 동화적이며 따뜻한 유토피아적 세계들이 표현된다”고 말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일주일만에 완결되는 책… 저자는 ‘챗GPT’

챗GPT 도서 서점가 ‘봇물’…2월 판매량 전월대비 94.5배 늘어

고전적인 책 출간은 짧으면 수개월 길면 1년가량이 소요된다. 그러나 이런 통념을 완벽하게 깨고 모든 과정이 단 7일 만에 완결되는 ‘이변’이 최근 벌어져 독자들을 놀라게 했다. 바로 챗GPT AI가 쓴 최초의 책이 그런 경우다.

전문가의 고유 영역이라 여겨졌던 번역의 자리를 AI 파파고가 대체했으며 교정과 교열까지 AI가 대신했다.

챗GPT가 쓴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은 인간 기획자와 AI가 펴낸 최초의 책으로 조명을 받았다. 저자인 챗GPT에 대한 소개가 흥미롭다.

“다른 출처들로부터 다양한 범위의 텍스트들에 대해 훈련을 받았고 문법적으로 올바르고 일관되게 문맥적으로 관련된 텍스트들을 생성할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인간 언어인 ‘자연어’에 대한 입력을 이해하고 처리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소개도 이채롭다.

서점가에 챗GPT 서적이 쏟아지고 있다.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한 독자들과 이와 맞물려 출판사들이 관련 콘텐츠를 펴내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인터넷서점 예스24에 따르면 8일 현재 챗GPT 관련 책이 모두 17종 발간됐다.

예스24 집계 결과 1월 챗GPT 관련 도서 판매량은 전월 대비 3.4배 증가했으며 2월에는 94.5배나 급격히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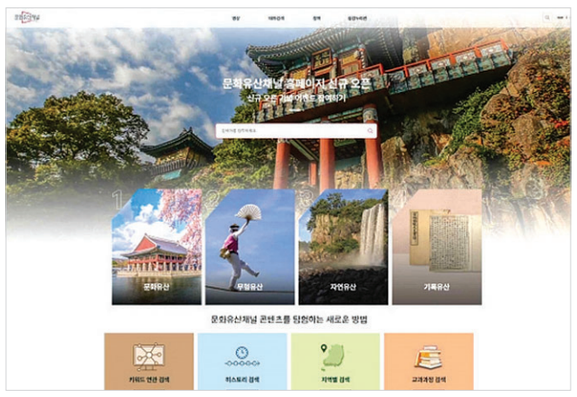
그 가운데 KAIST 교수이자 뇌과학자인 김대식과 챗GPT의 대화를 담은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를 비롯해 장민 포스텍 겸직교수의 ‘챗GPT시대 글쓰기’, ‘챗GPT 사용설명서’도 눈길을 끈다.

특히 김대식과 챗GPT의 ‘챗GPT에게 묻는 인류의 미래’는 흥미롭다. 단순히 ‘인간 대 기계’라는 도식적 대결을 넘어 향후 어떻게 기계를 활용해 인간 지성의 지평을 넓혀갈 수 있을지 성찰하게 한다.

챗GPT의 토대가 되는 AI 기술과 맞물려 인공지능 시대의 반도체 산업 등 경제 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흐름도 감지된다. 예스24에 따르면 올해 2월 ‘인공지능’ 도서 판매량은 전월대비 76.9% 는 것으로 집계됐다.

예스24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는 챗GPT 관련 도서의 출간과 판매가 꾸준히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단순한 클릭 만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기술이 알려지면서 독자들이 초기에 반응을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문화재단 문화유산 채널 ‘새단장’

4월말까지 개편 기념 온라인퀴즈 행사

문화유산채널은 2300여 편의 문화유산 콘텐츠를 보유한 문화유산 대표 누리집이다. 지난 2010년 개설된 채널은 문화유산(유형, 민속, 유적)을 비롯해 무형유산(전통공예, 전통기술, 생활관습 등), 자연 유산(천연기념물, 명승, 천연보호구역), 기록 유산(전적류, 서각류, 문서류, 서간류)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유산을 다채롭게 볼 수 있는 창이다.

한국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유산 채널이 새롭게 단장을 하고 8일 공개됐다.

먼저 보고 싶은 문화유산 명칭을 입력하면 연관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키워드 연관 검색 기능이 도입됐다. 찾고자 하는 문화유산을 입력하면 그에 해당하는 연관 콘텐츠를 검색할 수 있다.

새로운 기능도 추가됐다. 연도 정보와 기역 정보로 문화유산을 검색할 수 있는 히스토리 검색을 비롯해 지역별 검색, 예능다큐 등 장르별로 영상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 검색이 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볼 수 있는 유네스코 등재유산 검색 기능도 추가됐다. 교과 과정에 수록된 문화유산을 영상과 함께 소개하는 교과과정 검색도 있어 청소년들이 문화유산을 손쉽게 볼 수 있다.

한국문화재단은 누리집 개편을 기념해 온라인 퀴즈 행사도 연다. 오는 4월 30일까지 지역별 검색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 콘텐츠를 보유한 지역을 찾아 응모하면 된다. 정답을 맞춘 200명을 추첨해 커피 교환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유산채널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내부의 이쪽과 외부의 저쪽

박복영 여섯 번째 시집 ‘아무도 없는 바깥’ 펴내

여기 ‘바깥’을 서성이는 시인이 있다. 바깥의 기척에 섬세하게 반응하는 시인의 심상은 여리면서도 서정적이다.

시인은 ‘시인의 말’에서 이렇게 속삭인다. “찾을 수 없어 여기 두고 가요”라고. 그는 무엇을 찾고 싶었을까. 그런데 찾을 수 없어 그냥 두고 가는 까닭은 무엇일까.

군산 출신으로 월간문학 시 당선으로 창작활동을 시작했던 박복영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 ‘아무도 없는 바깥’(도서출판 달을 쏘다)를 펴냈다.

이번 작품집에서 시인은 바깥의 정서에 예민한 촉수를 드리운다.

“빈집의 공복은 끝끝내 거미줄이다/ 수채는 말라 허허한 바람만 들이고/ 빛바랜 격자무늬 문짝은/ 찢어진 흉터뿐이다/ 저 낡아 삐뚫어진 오랜 문형(門刑)/ 누군가 다시 부를 때까지/ 온몸은 야위어갈 테지만/ 어쩌자고 문짝은 가슴을 열고/ 바깥은 내보이는지/ 내가 그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표제시 ‘아무도 없는 바깥’은 빈집의 풍경을 보여준다. 세밀화 같은 공간은 남루하면서도 쓸쓸하다. 화자는 문짝이 열어보인 바깥을 보는데, 사실은 그 문짝이 화자의 마음 한켠 같다. 어쩌면 오늘을 사는 외롭고 아픈 현대인들의 마음 같기도 하다. “버틴 날들이 그려내는 빈집의 공복”은 이런저런 세상의 인연들과 자연스레 절연된 이들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전해수 문학평론가는 기적에 반응하는 시인에 대해 “그것은 마음의 경계를 긋는 소통과 불통의 원인이 대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박복영 시인의 ‘오래된’ 자기 탐색에 의해, 내부의 이쪽과 외부의 저쪽이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리고 있는 시인의 무의식적 반응에서 비롯되는 듯하다”고 평한다.

한편 박 시인은 경남신문 신춘문예 시조,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가 당선됐으며 송순문학상, 천강문학상 시조대상, 오늘의시조시인상, 여수해양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구겨진 편지’, ‘햇살의 등뼈는 휘어지지 않는다’ 등을 펴냈으며 오늘의 시조시인회의와 전북작가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